

| 계층별위원회 추진_ 현재와 전망 |

“계층별위원회, 대변되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 수렴되는 연결고리”

이길모 전문위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 정식 출범하였다. 새로운 대화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위원회 계층별 위원 및 각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본위원회 위원에 계층 구성원을 확대하여 청년·여성·비정규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추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확대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관련 법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특별위원회 등) ...②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두는

관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비정규직위원회, 4. 중소기업위원회, 5. 중견기업위원회,
6. 소상공인위원회

사전적 의미로는 계층이란 ‘재산·지위·신분 등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계층별위원회는 앞서 얘기한 대로 청년은 세대별, 여성은 성별, 비정규직은 종사자 직종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소상공인은 종사자 규모별로 모인 ‘사회적 동질적인 집단’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절박한 이해 당사자가 그들의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18.10.22.)에 따라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기로 한바 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련 계층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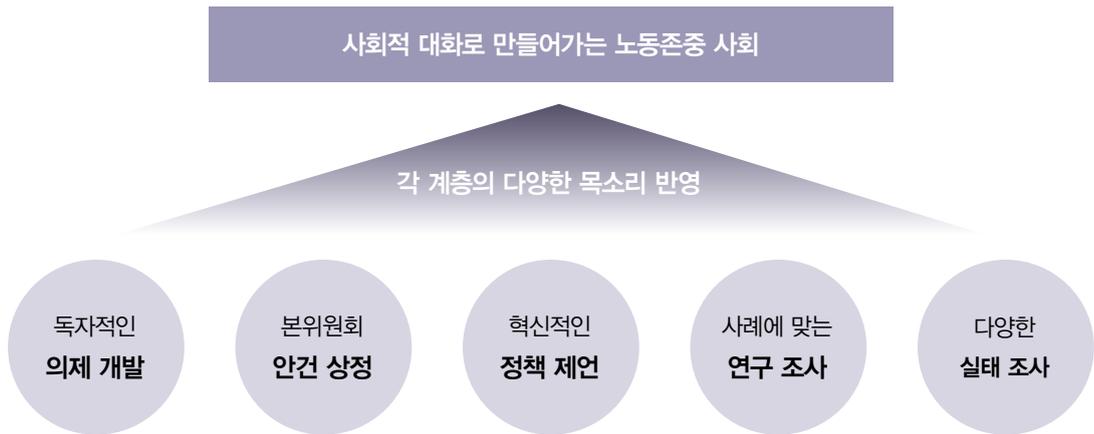
계층별위원회 현황

올해 6월부터 청년·여성·비정규직 단체와 의견청취, 좌담회 및 간담회, 준비모임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 계층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해 오고 있으며, 관련 법령(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전국단위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계층별위원회의 목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회 계층 관련 위원회는 그간 소외되었던 각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계층별위원회의 역할은 동법 제11조 제2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제개발, 정책제안,

본위원회 안전상정을 목표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개발된 의제와 제안된 정책 및 안전들은 ‘운영위원회’ 검토 후 본위원회에 상정하며, 관련 의제·업종별위원회 설치 및 의제로의 채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활동하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참여 단체를 검토 중이며, 현재 전국단위 노사단체와 관련 계층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 단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 계층별위원회 해당 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계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예정이다.

계층별위원회 전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11.22.) 이후 계층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선 구성하기로 한 청년·여성·비정규직 이외 소상공인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자 관련 노사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위원회는 본위원회 개최 후 관련 단체의 요구가 많아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우선 구성하기로 한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자 각 계층별대표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